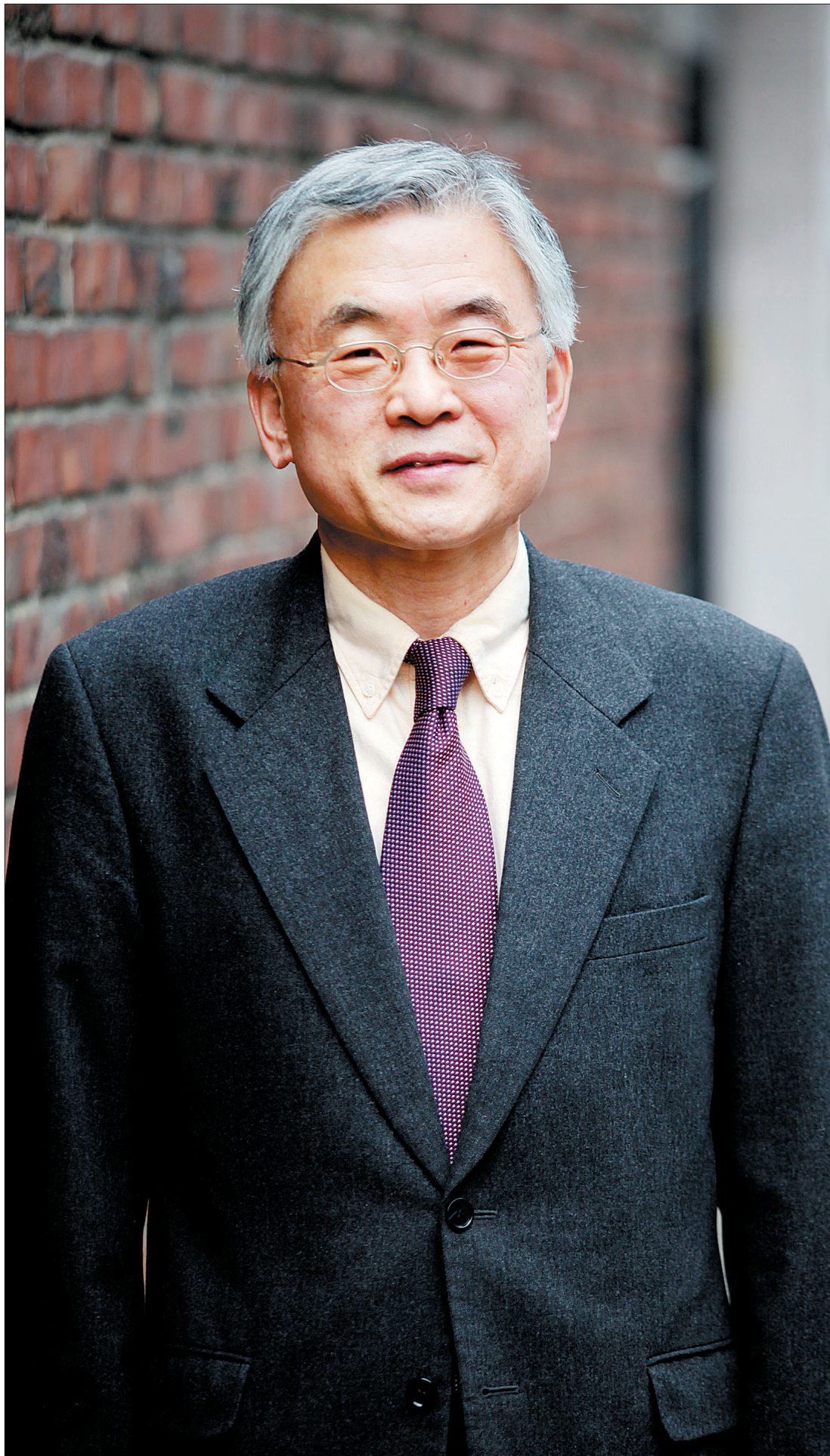


“교수 한명 자각 모이면 큰힘”...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최용준 교수는 ... 동국대 법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숭실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1984년부터 원주 상지영서대학 교수로서 상법과 국제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과 강원도청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원주시청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불교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맡아 6년 동안 세만기를 성료했다. 원주 성문사 신도회 고문 소임을 맡고 있다.

40년 전 종립 동국대 법대에 입학한 험기 왕성한 한 청년이 오대산 월정사를 찾았다. 첫 여름방학을 맞아 조용히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당차게 탄허 스님의 소개서를 가져온 그 청년에게 사찰에서는 스님이 썼던 방산굴의 독방을 내주었다. 그것이 불심의 씨앗이 되었다.

40년이 지나 하얗게 머리가 센 그 청년은 마치 그때처럼 험기왕성하게 불교계를 위해 일한다. 바로 최용준 교수(61·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의 이야기다.

상지영서대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최용준 교수는 2009년부터 제13대, 14대, 15대 회장을 맡아 6년 동안 불자교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 왔다. 2월 28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그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중이다.

“뒤돌아보면 집행부에서 ‘보다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다니며 불자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가 보다 많았다면, 불자교수들을 응집하는 힘이 더욱 생기고, 대학에서의 포교도 크게 활성화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말을 쏟아냈지만 6년 동안 교수불자연합회는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다.

먼저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창기 교불련은 교수들이 모인 뒤 식사비가 부담될 정도였다.

최 교수는 “모든 행사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회장이자 보니 모금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벽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리뛰고 저리뛰었다. 상원사 의정 스님의 도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가 교수불자연합회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열정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었다. 또 교수들의 참여율도 대폭 높아졌다.

“2009년 첫 하기교수불자대회를 열었을 때였어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광부 공무원이 축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행사가 진행되니 참으로 부끄러워 몸을 바를 몰랐습니다. 차마 밝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참석율이 낮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일이 전화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100여 명씩 동참했습니다. 최근에 개최한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먼저 회원수첩을 만들었다. 그동안 교불련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회원수첩조차 없었다. 또한 그동안 나온 논집을 연구재단에 등재신청했다. 교수불자대회도 세미나를 비롯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병행했다. 여기에 인도와 일본성지순례 등 교수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최 교수는 교수들이 신심있고 더욱 열심히 불교계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이 혼탁할 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교수들이라며 교수 한명 한명의 자각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교수가 전국에는 10만 명이 있습니다. 이중 적어도 5만 명이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불련 회원 교수는 1800명 수준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대회 등에도 4~500명은 모여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야

합니다.” 최 교수는 자발적인 동참의 근원이 바로 이타행에 대한 발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금강경〉 14분의 ‘이상적멸분’에는 이타행을 넘어서 위 이의일체중생이라고 했다”며 “교불련은 말로의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단계를 발돋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불련에 대한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봉사실천, 학술연구, 동아리지원 세 분야에 수여하는 교불련 자체 상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창립기념법회 등에서 불자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후임 회장이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회장 소임 6년... 2009년 이후 회원 2배 성지순례 통해 교수 네트워크 초석 다져 2011년부터 4년간 대학생 동아리 지원 “자체 학술·봉사상 제정 못해 아쉬워”

2010년 서불대 사태 맡아 정상화 보람 온가족 관음정근·기도 함께해 ‘화복’ ‘남탓말고 스스로 변해야 진정한 불자’

대학생 포교, 지도교수 활동이 핵심 대학시절 불심이 싹튼 경험에서 일까. 최 교수는 임기동안 교불련의 중점사업으로 대불련 활동을 지원했다. 먼저 최 교수는 포교원장인 혜종 스님, 당시 김규철 진흥원 상임이사, 이종두 총무관, 명호근, 윤제철,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 등과 매월 회의를 열고 그 결과 2011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4년간 총 7000만 원 가량을 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에 나서고 학생들과 직접 만났다. 전국 43개 대학의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 활성화 위해 지도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3년부터 대구, 부산, 광주, 청주 등에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대불련 조직 감소와 교수 불자들의 활동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제주대와 한국교통대, 대전대, 건국대에서 불교학생회가 재창립되고 동국대 전산원 등 법회가 없던 곳에서도 법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강원대의 경우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와 불자학생들이 불사를 벌여 법당이 불상을 모시기도 했다. 그 기쁨에 최 회장은 직접 사경한 〈법화경〉을 법당 부처님 복장에 봉안했다.

“대학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아리는 지도해주는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큼니다. 결국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불교계의 동맹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자 교수들이 포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대학 내 불교동아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는 최근에는 취업문제 등으로 40년 전 학창시절에 비해 동아리 수에서부터 학생 수가 모두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창 시절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불교만의 문화가 자리잡혀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으로 인한 압박감, 인생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보급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에서 불교학생특강을 열어 흥행에 성공했지만 세미나 참가 학생들의 대불련 가입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일화를 털어냈다.

최 교수는 “대학생들을 법회로 유인하려면 기존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선시 낭독회, 참선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이 있는 지역의 사찰과 선배불자, 교수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교수들의 장기적인 시각에 놀라 이어 최 교수는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신교계의 장기적인 시각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독교교수협의회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털어냈다.

“2012년 기독교교수협의회와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2019년 독립선언 100주년 행사도 추진 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교계에는 즉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큰 대회를 한다고 해도 길어봐야 1년~2년 안으로 준비합니다. 인재불사도 그렇습니다. 불자들이 불자라고 멋멋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사람을 키워내고, 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미흡해서입니다.”

최 교수는 “1980년대 가톨릭계가 강남 성모병원 부지를 헐값에 인수할 때 불교계는 법안을 겪었으며 2000년대 개신교계가 성시화운동을 할 때, 불교계는 시청앞에서 범불교대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그 것으로 그쳤다. 사안에 대해 뼈아프게 느끼고 긴 시각에서 변화해야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재불사를 비롯해, 민영교도소 문제 등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많으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 교수는 최근의 종립학교에서의 갈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중요한 점은 교육기관으로서 얼마만큼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별,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